

글말교실 소감문

사회학과 20200478 문주연

평소와 다름없이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던 중, 교수님께서 글말교실이라는 프로그램을 추천하셨습니다. 부끄럽게도 저는 3년간 학교에 다니며 강의를 듣는 것만으로도 벅차다는 핑계로 비교과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한 번 해볼까?’ 생각이 들었고,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듣게 된 것이 조인숙 교수님의 ‘스피치로 소통하기’였습니다. 저는 소극적이고 낯을 많이 가리는 내향적인 성격으로 발표는 물론, 손을 들고 질문하거나 많은 사람 앞에서 의견을 말하는 것을 극도로 꺼리고 어려워합니다. 이러한 성격은 성적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었고, 개인적인 성장·발전을 막는 요인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항상 고민거리였지만, 이렇다 할 해결 방법은 없어 혼자 골머리를 앓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글말교실에서 수강한 강의를 제 고민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조인숙 교수님의 강의를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몸으로 먼저 행동하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간단하지만, 막상 실천하고자 하면 어려운 것이 행동으로 나서는 것임을 부정하는 이는 없을 것입니다.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기자에게 질문할 기회를 주었는데,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아 중국의 기자가 질문권을 가져갔던 사건은 질문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수업에서 종종 자료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정말 ‘질문’하는 것 그 자체일까요? 제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일단 한 번 ‘해’보는 것입니다. 긴장하고 당황해서 어딘가 엉성한 질문을 하더라도, 일단 질문‘했’기 때문에, 경험치는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경험치는 나중에 더 큰 회장에서 중요한 질문을 할 수 있게 해 줄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한 번 해보는 것은 훌륭한 경험이 됩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원래 당신께서도 질문하는 것, 발표하는 것에 두려움이 있었으나 한번 해 보는 것을 목표로 잡고 행동하니 그런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든, 행동하는 것은 도움이 된다는 말씀은 저에게 용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과가 좋지 못하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생각을 버리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해보자는 마인드로 남은 1학기를 보냈습니다. 남 앞에 나서기를 평생 어려워하고 주저했던 제가 조장을 하고, 발표를 하고, 손을 들고 질문을 했습니다. 하겠다고 말하곤 뒤돌아 후회하기도 했지만, 이미 뱉어버린 말에 책임지고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러자 절 괴롭혔던 막연한 두려움이 우습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극복하고 도전할 수 있는 수준이 된 것입니다. 처음엔 말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시작한 행동이었으나 지금은 제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 원동력으로 소감문을 쓰는 지금, 예전에는 두려워서 생각도 못 해본 배낭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삶을 바꾸는 건 단 하나의 행동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 준 강의였습니다.